

## 송암교회 말씀묵상

- 이 달의 이야기 -

까지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들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야,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백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응,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어려력의 80초 생각나누기》 중에서



2022년 10월 24일(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찬송 345장

야고보서 1:2-1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교회 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고보의 조언이 담긴 서신입니다. 교회 내 차별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있었습니다. 부자 성도에게는 잘 대해주나 가난한 성도를 하대했던 모습도 있었고(2장) 부자 성도의 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성도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5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했으며, 무엇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질문 : 나는 어떤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까?

- 기도 : 주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5일(화)

하나님의 뜻

찬송 284장

예레미야 애가 1:13-22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어”(17절)

예루살렘이 찢기고 상하여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예레미야는 본문말씀을 고백합니다. 그가 내뱉은 탄식기도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였고 예수님은 온 몸이 상하고 찢긴 채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멸망과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값진 희생의 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 질문 : 지금 나의 삶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 기도 : 예수님이 값진 희생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6일(수)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찬송 546장

마가복음 11:12-14, 20-24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14절)

마가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다음 날 제자들이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본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사고파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빼앗고 훔치는 강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은 아무 쓸모 없고 독이 됩니다. 결국, 일단 무성하여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 질문 :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언제인가요?

- 기도 :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7일(목)

위로의 사람

찬송 525장

디모데후서 1:13-18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버림 받았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며 복음 전파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상황속에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수 신분이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배신할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번 바울을 찾아가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옳은 길을 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오네시보로처럼 서로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시는 모든 송암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질문 :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지가 필요한 순간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 기도 : 주님, 옳은 길을 가다 낙심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8일(금)

그리하면 살리라

찬송 78장

예레미야 27:1-22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가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17절)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보이신 것은 목에 멍에를 지듯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궁에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짓 희망의 메시지를 말한 것이지요. 거짓 희망의 메시지가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듣기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쓴 소리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 질문 :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하시는지 같은가요?
- 기도 : 주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29일(토)

쇠 멍에

찬송 425장

예레미야 28:13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하나나에게 보내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나무 멍에가 쇠 멍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은 유다는 바벨론의 압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금 유다의 구원을 위해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짓에 현혹되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떤 압제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복음을 예언자를 통해 전하십니다. 또 예언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은 삶을 감당하십니다.

- 질문 :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 기도 : 주님,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30일(주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찬송 304장

누가복음 17:11-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불평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명의 문둥병자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른 9명의 감사도 기대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일상과 생명 그리고 소중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질문 : 나의 감사생활은 어떻습니까?
- 기도 : 주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